

참 고 자 료

'04.3.19(金)

弘報(海外言論)

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화국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를 반대하며 투쟁, 27년간 투옥됐었고 1994년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'진실과 화해 위원회'를 통해 보복 없는 과거청산을 위한 사회통합 노력을 주도하였습니다. 남아공의 인종차별 배경·만델라 전 대통령 주요일지·퇴임 후 평가 등을 참고 보고드립니다.

□ 남아공화국의 인종차별 배경

- 17세기 초 케이프 타운(Cape Town)에 화란계 이민들 정착
- 1814년 당시 아시아 항로의 핵심 기착지인 케이프 타운을 영국이 화란과의 전쟁으로 케이프 타운 지역 점령
- 1830년대 말 화란계 주민들 남아공 동북부 내륙으로 이주
- 1850년대 화란계 2개의 독립국가를 수립
- 1860년대 이후 화란계 이주지에서 대량의 다이아몬드와 금이 발견됨
- 1899 ~ 1902년까지 영국은 '보어 전쟁(Boer War, 화란어로 농부)'으로 화란계 독립국가들을 굴복시킴
- 백인들의 영토 다툼 과정에서 흑인들은 노예로 전락, 참정권도 없이 빈곤에 시달림
- 1948년 화란계 백인들은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를 주장하는 국민당(National Party)을 집권시켜 아파르트하이드(Apartheid, 화란어로 분리)정책 폈음

□ 넬슨 만델라 관련 주요 일지

- 1918년 템 부족의 족장 아들로 태어남
- 1940년 포트헤어대학 재학 중 시위를 주도하다 퇴학됨
- 1944년 아프리카민족회의 청년연맹 창설
- 1952년 인권변호사로 활동
- 1964년 종신형을 받고 27년간 감옥 생활기간 중에도 인종차별 철폐와 민주화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反아파트하이드 투쟁의 정신적 지주 노릇을 함
- 1991년 국내적 저항·국제사회 압력으로 디 클럭(De Klerk)대통령은 만델라를 석방하고 아프리카 국민회의(ANC)를 합법화 함.
- 1993년 노벨평화상 수상
- 1994.5
 - 전국민이 참가하는 총선을 치뤄 아프리카 국민회의에 정권이양, 대통령에 당선됨
- 1994.11
 - 남아공화국은 만델라 대통령 집권 이후 ‘진실과 화해 위원회’ 설치
 - 만델라는 아파트하이드(인종차별)를 철폐, 과거의 진실을 밝히되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를 하는 場을 마련.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새로운 시스템을 창출했다는 평가
 - 먼저 개별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규명한 후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
 -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관용을 베풀었음
 - 데즈몬드 투투 주교가 위원장을 맡은 ‘진실위’는 2년 동안

160여회의 청문회와 21,000여명의 증인으로부터 증언 청취
⇒ 同 정책은 ‘보복없는 과거청산’으로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았지만, 과도한 백인 기득권 존중으로 흑인들의 생활 개선과 그것을 통한 사회 통합에 실패했다는 견해 상존

※ 공식 실업률 35% 상회

⇒ 1998년 10월 ‘진실위’ 보고서가 공개됐을 때 ‘진실위’ 활동에 대한 남아공 내 각 세력의 불만이 표출됨.

○ 1999.6.16

- 만데라 대통령 퇴임식과 타보 음베키 신임대통령 취임식
 - 31개국 정상과 100개국 축하사절 참석
 - 리비아의 가다피, 아일랜드 매컬리스, 포르투갈 삼파이오 대통령 등 각국 정상과 미국의 리노 법무장관, 프리스컷 영국 부총리 등이 참석

○ 음베키 대통령은 만델라 전대통령처럼 국민의 절대적 추앙을 받는 인물이 아님. 앞으로 몇 년 안에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면 흑인들의 불만은 행동으로 불거져 나올 수도 있음

- ‘흑인해방’ 10년째를 맞는 2003년 5월, ▲빈부 양극화와 늘어나는 극빈층 문제▲범죄율 상승▲남아공 전체 인구의 11%가 에이즈바이러스 보균자▲인근 국가들 흑인의 남아공 이주로 일자리 고갈

○ 2000.11.22

- 미국 국제자유상 수상
“폭력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이는 누구나 평화의 챔피언이 될 수 있다”며 “특히 젊은이들은 인종간의 차이를 넘어 잠재적 적들과 공통적 기반을 모색해야 한다”고 역설함.

o 2001.4.27

- 만델라 · 아난 UN 사무총장 · 빌 게이츠 MS 회장 등 저명한 사들이 어린이 보호 · 아동의 삶 개선을 위한 UNICEF(유엔 아동기금) 캠페인 적극 동참

o 2002.6.10

- 만델라, 영국정부와 인권공방
- 로커비 사건의 범인으로 수감된 재소자의 처우문제 제기
- 1997년 리비아의 가다피 대통령을 설득, 테러용의자 3명을 특별법정으로 내보냄

※ 1988년 스코틀랜드 로커비에서 美 팬암기 공중폭파사건으로 270명 희생

o 2003.11.16

- 만델라 부룬디 평화협정으로 내전종식 중재
- 중부 아프리카 부룬디는 10년 내전으로 30만명 사망

■ 만델라에 대한 평가

- o 독일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부모 · 테레사 수녀 · 만델라 대통령 · 고르바초프 대통령 등으로 조사됨.
- o 명예롭게 대통령 임기를 마친 뒤 내정에는 관여치 않고 지구촌 곳곳에서 ‘인권의 마지막 보루’ 역할 수행
- o 클린턴 대통령은 “당신은 용서로써 얻는 자유와 겸손의 힘 등 세상에 많은 선물을 줬다”며 치하하기도 함.
- o 만델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한계를 잘 알았기에 임기를 3년이나 남겨둔 채 연임을 포기했음.
- o 수백년간 지속돼 온 인종차별의 장벽을 없애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고 산적한 정치 · 경제 · 사회문제는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판단, 후임자를 세웠음.